

EU, 한국산 폴리에스터 반덤핑 제외

2009년 7월부터 강력사 반덤핑 조사 착수 ... 중국산은 5.1-9.8% 부과

EU(유럽연합)이 한국산 폴리에스터(Polyester) 강력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했다.

외교통상부는 EU가 한국산 폴리에스터 강력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고 12월2일 발표했다.

EU는 2009년 7월 이후 한국, 중국, 타이완산 폴리에스터 강력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으나 중국산에 대해서만 5.1-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 조사 대상기업은 코오롱, 효성, 휴비스, KP 캠텍 등 4개 기업이었다.

폴리에스터 강력사는 자동차 타이어, 공업용 벨트 등에 쓰이는 특수 합성섬유로 국내기업의 EU 수출액은 2009년 5200만달러 수준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2/02>